하나되라 부르시는
이 시대의 여성 메리 워드

우리는 전체의
일부다.

2021

메리 워드 주간

안 내

사계절의 여성이며 선각자인 메리 워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추구하였다.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메리 워드의 동료인 우리는 모든 것 안에 하느님, 자아, 타인, 그리고 창조물과의 연관성, 이 네 가지가 내포되었음을 굳게 믿는다. 성 이냐시오는 '만사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고 하였고, 메리 워드는 '모든 것을 하느님과 연관시킨다'고 표현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 성부-성자-성령을 상징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요청 받고 있다.

통합에 대한 우리의 숙고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메리 워드의 동료로서 함께 수행할 새로운 형태의 미션으로 하느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과 공동 유산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인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격언에서 보듯이,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시너지에 초점을 맞출 때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창립자 메리 워드는 상상 가능한 가능성과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분이셨다. 우리 모두는 이 서클 - 포용적이고 생명을 주는 삶의 서클 - 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의 재능을 함께 모아야 한다.

코비드 19는 오늘날 이 세상에 새로운 연대의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불의와 불평등을 세상에 폭로했다. 코비드 19는 남성과 여성, 소년 소녀들, 아동들, 노인들, 장애자들, 소수 인종과 소수 민족들, 원주민들,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겪는 배척과 차별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흑인들의 삶의 문제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방식 - 우리 상호간의 안녕과 아픔을 느끼는 방식도 바뀌었으며, 우리가 더 깊은 인간적 연결성에 눈 뜨게 되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하느님, 자아, 타인과 창조물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 시간으로 본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장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함께 만들라고 부르신다. 메리 워드는 "여성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리라" 확신하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정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시대의 징표에 응답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준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21세기는 교량을 재 연결하고 구축하는 시기, 정신과 마음으로 일치하는 시기, 변혁의 시기, 우리의 창립자인 가경자 메리 워드의 카리스마와 영성에 대한 성실로 우리의 미래 미션을 함께 창출해야 할 시기다.

하느님, 타인, 창조물에 대한 메리 워드의 사랑에 영감을 받고 이 소책자에 기고한 메리 워드 가족 구성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더 큰 영예와 영광을 위해 지구와 모든 창조물과 올바를 관계를 맺도록 도전하고 있다.

Sr. Mercy Shumbamhini CJ & Sr. Jane Gikonyo IBVM

Day 1

2021년 1월 23일

모든 것을 하느님과 연관시키는 여성 메리 워드

메리 워드의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앙은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도록 메리를 이끌었으며, 메리가 일상 중에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느님과 연관시키는 것", 자유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메리 워드는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면서, 자신을 하느님께 내맡겼다. *유화생애* 21번은 메리에게 맡겨질 사명에 관해 하느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은 신비 체험인 영광의 현시에 대해 전해 준다. 메리 워드는 이 현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느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

특별히 매일의 영적 수행을 통한 메리의 복음적 금욕 생활은 메리를 하느님과의 친밀로 이끌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그분께 드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그분 안에서 찾겠다."*고 하신 말씀은 자신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하느님의 섭리에 신뢰하는 것이었다. 메리는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에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형편이 좋든 역경에 처했든, 메리에게는 모든 체험이 하느님을 발견하는 기회였다. 메리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길에 충실하였다.

메리 워드처럼 우리도 가장 힘든 역경의 시기에 성실 하도록 불리웠다. 특별히 궁핍한 이들과 사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내미는 사도직에서, 현재 메리 워드 두 수도회의 통합을 숙고할 때처럼 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좋은 일을 진실하게 계속 해야 한다. 또 우리가 이미 체험했듯이, 여러가지 형태의 불확실함을 초래한 전세계 코비드 19 팬데믹, 기본적인 생계 수단을 빼앗기고, 실직자들, 십대 임신 사례와 가정 폭력 사례의 증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세계는 매우 불확실하다.

메리 워드는 당시 교회와 사회의 필요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였다. 위에 언급한 메리 워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소중한 통찰을 제시한다. 메리의 삶은 메리 워드의 동료인 우리에게 기도에 충실하고, 하느님과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계속 노력하며,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점과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하는 데 충실하라고 우리를 일깨운다. 메리 워드의 첫째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메리의 전 생애를 통해 예수는 메리의 핵심어였고 중심 주제였다. 메리의 모든 청원을 보면, 예수는 모든 위험의 피신처였으며 모든 악의 보호자였다.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게 하며, 메리 워드는 이런 모든 도전을 예수님과 연관 지으라고 우리를 격려하신다.

나의 삶, 가족, 공동체 사도직의 현실을 하느님과 어떻게 연관시키고 있는가?

내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하느님이 내 삶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

Day 2

2021년 1월 24일

열린 마음과 정신과 의지의 여성 메리 워드

메리 워드에 관한 자료를 연구하는 이는 누구나 메리 워드의 인품에 대해 놀라움과 존경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메리의 적대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꼈다.

우리 수도회 창립자의 생애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다. 이제 메리 워드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메리 워드의 "출발선" 은 높았다. 메리는 신앙의 증인들 – 부모, 우르술라 라이트 할머니, 친척들, 덕망 높은 모든 가족들 - 가운데 성장했다. 이런 배경을 지닌 메리는 하느님이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분임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메리가 성장 시기에 지니게 된 순교에 대한 열망은 세대를 거쳐 이처럼 아름답게 전수된 신앙의 결과였다. 메리의 신앙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인격적 관계였다. 메리는 이런 관계 안에 살면서, 대략 12살 경에 비교적 빨리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메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현하려는 놀랍고도 사랑에 찬 메리의 위대한 노력은 확고하고 지속적이었으며, 메리의 생애를 통해 줄곧 성장했다. 순수하고 자유로우며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우리는 메리 워드에게서 볼 수 있다.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 – 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과 협력함으로써 성령의 안전한 인도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하느님의 손에 더 좋은 연장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이 메리 워드에게 매우 중요했으며, 기도와 하느님과의 강력한 연결이 메리의 생애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이 점이 바로 메리가 모든 투쟁 가운데도 그렇게 안정적이고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다.

모든 가족, 공동체 혹은 관구/지구처럼 우리 각자도 재능이 있다. 우리는 시대의 필요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유기체로서 개개인이 서로를 보완한다!

나는 이 점을 어떻게 알아듣는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Day 3

2021년 1월 25일

자신의 미션에 경계가 없는 여성 메리 워드

메리 워드에게는 새로운 여성 활동 수도생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었다. 그 비전은 메리가 원래 지녔던 전통적인 수도생활에 대한 열망과 당시 일반적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메리는 사도 바오로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오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통한 구원에 대한 자신의 기존 믿음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이방인들에 대한 공간을 교회에 마련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선포했다. 다른 한편, 메리 워드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남성 중심인 교회에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초대 교회와는 달리, 메리 워드 시대의 교회는 매우 제도적이었고 메리의 청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메리의 미션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유럽 전역에 걸쳐 많은 학교와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메리 워드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의 불확실성 앞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위해 하느님께서 더 많은 것을 하시게 하라고 우리를 초대한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음의 기쁨*에서"시간이 공간보다 더 크다."고 하신 원칙과 관련이 있다. 223항은 "이 원칙은 눈 앞의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는 어렵고 적대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현실의 힘이 강요하는 계획의 변경을 참을성 있게 견뎌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 안에서 새로운 진전의 과정들을 만들어 내고, 그 과정들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우선시 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메리 워드가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미션에 경계를 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준다 – 메리 워드는 하느님의 때를 믿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예기치 못했던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해 생활 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순례자 메리 워드의 삶을 다시 바라볼 때, 생활과 여행 중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영역의 제한이 "순례자"인 우리의 정체성에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와 더불어 일의 형태와 성격은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메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시간 안에 살고, 소외되고 예수님의 빛에서 고립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교회가 그들을 포용하도록 만들라고 가르치신다. 우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든, 메리 워드 가족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순례의 삶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례를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 갈라 3:28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AMDG)라는 모토가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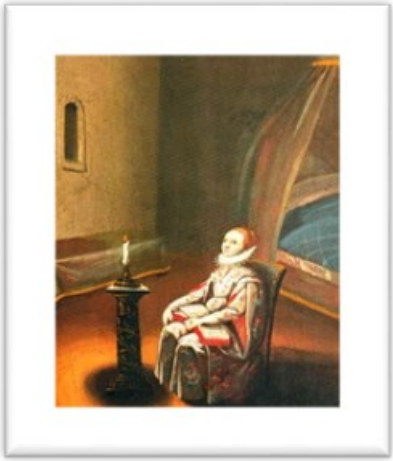
메리 워드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활동 중의 관상가로 Magis를 산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수진 데레사 수녀 CJ – 한국 관구

Day 4

2021년 1월 26일

자신의 삶과 미션에 충실했던 여성 메리 워드



진실과 성실, 온전함이 메리 워드의 삶에 매우 중요했다. 메리 워드는 언제나 온전함을 제일 우선 순위에 두었다. 메리는 자신의 수도회 계획서를 위해 다른 규칙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 나중에 적용할 생각으로 모든 속임수를 거절했다. 온전한 삶은 가면이나 가식이 없는 성실의 한 단면이다. 성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닿아 있다. 메리 워드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할 수 있는 용기를 발견한 것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다. 우리의 영감과 유산으로 받은 메리 워드의 카리스마,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기도와 성찰을 통해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메리 워드는 내적인 자유와 충실로 하느님을 기다렸다. 메리는 우리의 삶과 다른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보여준 그대로 존재하십시오."*라고 한다. 또 메리 워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십시오."라고 도전한다.*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 문화의 역동성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불평등, 불의, 종족주의, 굶주림, 부패, 빈곤, 탐욕, 코비드 19 팬데믹, 환경 파괴 등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 무슨 도전을 하는가?

메리의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일상적인 평범한 일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도록 초대받고 있다. 메리 워드가 우리에게 하느님과 자신, 다른 이들과 모든 창조물과 하나 되라고 도전하신다고 느낀다. 나는 이곳 짐바브웨에서 고아들과 에이즈 감염 어린이들을 위해 활동하면서 그들이 굶주림과 약품

부족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본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이 격리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자기희생, 헌신, 지구촌 협력, 완전한 참여, 대화, 옹호, 전문가 자문, 정보통신기술 등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메리 워드의 중재로 한 가족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가경자 메리 워드,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고 저희에게 당신의 영을 주소서.

메리 워드에게 있어서 진실, 성실, 온전성은 모두 완전함, 전심(全心), 진실을 의미한다. 우리는 계속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21세기 메리 워드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Day 5

2021년 1월 27일

교회를 위한 여성 메리 워드

메리 워드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메리는 교회를 위해 참된 상징이 되었다. 메리는 1609년 영국에서 지내는 동안 영혼들을 돕는 데 전념했다. 사람들이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병자들을 보살폈다. 이 시대의 성인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빈자와 병자에게 두 번 나타나셨다. 메리 워드는 사제들이 숨어서 성사를 줄 수 있도록 도왔으며, 영국 교회의 박해 시기에 열정적으로 교리를 가르쳤다. 메리 워드의 삶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확실한 영적 방식이다. 마니피캇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동정 성모마리아처럼 메리 워드도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희망의 복음을 가져오고, 살아냄으로써 자신의 마니피캇을 노래했다.

메리 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미션에 충실하였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 박해받는 이들, 병자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소외된 이들, 이주민들과 난민들에게 메리 워드처럼 희망을 회복시켜 주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것이 바로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가 메리 워드를 하느님께서 교회와 사회에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언급하신 이유다. 메리 워드를 따르는 우리도 이 시대의 중대한 문제 - 질병과의 투쟁, 종족주의와의 투쟁, '우리 공동 집'의 보호, 밀매된 이들, 고아들, 굶주린 이들, 죽어가는 이들에게 손을 뻗는 등의 중대한 문제로부터 도피해서는 안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통한 설교가 메리 워드의 탁월한 덕성이었으며, 메리 워드는 말하는 대로 실천하였다.

하느님은 당신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우리가 메리 워드 가족으로 하나되어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초대하신다. 그 지역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우리의 손은 더러워질 필요가 있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손을 내뻗을 수 있도록 구조적 경계를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 특별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가 되어야 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 제1항 참조). 우리는 하느님의 표징과 예언적 소리가 되라고 파견되고 축성된 여성들이며 벗이요 동료들이다. 우리는 메리 워드의 모범을 통해 희망의 채널이 되고, 그리스도와 보편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 하나 되길 희망한다.

교회의 선익을 위해 함께하도록 불리운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현시대의 중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가톨릭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양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가?

Day 6

2021년 1월 28일

다른 이들을 위한 여성 메리 워드

메리 워드와 초기 동료들의 유화(유화생애22)를 보면, 공동 관심사를 가진 여성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단순히 함께함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들의 열린 원이 '와서 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메리 워드의 열린 원의 초대와 메리의 생애와 영성은 깊은 경이로움과 경외감, '… 면 어쩌지?' 하는 느낌과 같은 불안감을 없애준다. 메리 워드의 열린 원의 목적은 오늘날 이 세상에 메리의 비전과 가치를 포용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메리 워드가 기록한 대로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고, 그런 모든 선업을 위해 강하고 적합하게 되는 것"(1619 피정 기록)이다.

'열린 원'을 묵상하노라면,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 열린 원을 더 풍요롭게 하는 새롭고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열린 마음을 함께 지닌 사람들의 친교를 상상하게 된다. '저 너머를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임/함께함은 자양분을 얻기 위해, 지지와 친교를 위해 우리가 찾아오는 곳, 우리가 도전을 받고 풍성해지는 곳, 우리가 다양한 활동/사도직을 하러 갈 때 우리가 긴장을 풀고 상쾌해지고 축복을 받는 샘과 같은 곳이다. 그곳은 우리가 경축하고, 도전과 신뢰, 에너지와 힘을 받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만찬 방과 같은 곳이다.

당신의 샘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누구를 축복하는가?
누가 당신을 축복하는가?
당신의 만찬 방은 어디인가?

코비드19 팬데믹 중인 이 중대한 시기에 '벗들의 서클'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숙고하면서 "레몬 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레몬 편지는 메리 워드 벗들의 서클이 수도회를 함께 활기차게 유지하려는 결의를 변함없이 지속시켰다.

물리적인 거리나 고립은 우리가 꿈을 계속 살아가는 데 방해물이 될 수 없다. 과학 기술은 우리를 '함께' 연결하는 데 유용하고도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21세기 메리 워드의 열린 서클은 우리가 만나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는 공간이다.

벗들의 서클(메리 워드의 열린 서클)에 당신 자신을 투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Day 7

2021년 1월 29일

창조물과 조화를 이룬 여성 메리 워드

메리 워드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였다. 의로운 영혼의 현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위한 한 가지 특별한 은총이다.

> *"(제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이러한 경지의 행복은 모든 선한 일에 적합하게 준비된 마음과 전적인 유용성을 지니고 지상적인 사물에 집착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탁월한 자유입니다. 또한 저는 그때 그런 영혼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만 했던 자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그 후나 혹은 다른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확실합니다."*
> (메리 워드가 의로운 영혼의 현시에 대해 리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

메리 워드의 동료인 우리는 이 현시를 통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과 조화를 이루어 살며, "하느님의 현존 안에 걸어가도록"초대받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살피도록 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창세기 1,28). 모든 창조물은 하느님의 사랑에 찬 창조를 통해 열매를 맺고 생명을 나눌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 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과 하느님, 지구와의 관계와 헌신에 있어서 자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언급하신대로, 우리와 자연 간에는 참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속하므로 자연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합니다."(찬미 받으소서 #139). 그러나 우리 삶의 방식이 이런 연결을 단절시켜 버린다. 탐욕과 이기주의 생활양식이 우리의 삶을 하느님과 하느님의 창조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인간의 생명과 행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의 생명과의 건전한 관계를 파괴한다. 이는 세상의

환경, 특별히 가난한 이들, 우리 공동의 집의 부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범죄 이전에 파라다이스에 이런 상태로 있었던 이들처럼", 멀리 도망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듯이, 의로운 영혼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른다. 우리는 깨어나 회심하도록 초대받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10)에서 한 가지 좋은 예로 프란치스코 성인을 소개한다. "그분은 하느님의 피조물을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하셨고 또한 그 기쁨, 관대한 헌신, 열린 마음으로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사셨던 신비주의자요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자연 보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 사회적 헌신, 내적 평화가 어떠한 불가분의 유대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느님 창조물과 하나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Sr. Aithien Nguyen - IBVM 호주 관구 동티모르

Day 8

2021년 1월 30일

미션을 위해 수도회가 하나 되길 바라신 여성 메리 워드

최근 몇 년간 똑같은 수도회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 모든 회원은 메리 워드가 원래 지니셨던 꿈의 한 부분인 정체성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있다.

건강 팬데믹은,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들 간에, 창조물 간에, 원래 숨결(Ruah)과의 다중 분리 가운데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게 된 수많은 다른 팬데믹을 부각시켰다. 우리가 지구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명백해졌고, 이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긴다: *이로 인해 우리가 더 인간적이 될 것인가? 더 가난해진 이들을 위해 이제 누가 밤을 지킬 것인가? 황폐해진 지구를 위해 누가 밤을 샐 것인가?* 하나의 복잡한 문제 … 혼자 가면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다. 하나의 미션을 위해,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함께 장인(匠人)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이를 필요로 한다. 동정성모회와 예수수도회의 공동 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동일한 신원과 우리를 결속시키는 요소인 충실, 용기, 탄력성, 하느님께 대한 열정, 미션을 위한 열정, 자유, 정의, 성실을 발견하였다. 우리의 풍요로운 유산과 수도회의 정체성은 복음에 깊이 뿌리내렸고, 이제 앞으로 추진하고 재창조하며, 변화된 현실에 생명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보물을 보존하는 이들로서, 재통합과 미션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패턴을 함께 엮어 가야 한다. 이 새로움은 우리가 함께 모이고, 연락하고 선물과 재능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회원 각 자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를 통해 발전할 것이다.

문화 간 대화의 혼합과 조합은 틀림없이 색감과 질감이 풍요롭고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전체를 위해 깊이와 몸체와 실체를 구축할 것이다. 이는

공동선을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새로운 패턴을 엮기 위해 길이 만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통합은 미션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와 가능성을 불러 일으키는 발전의 순간이며, 재통합의 마법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과 창조물과의 관계와 연계성의 변화에 기여하게 된다. 빈곤한 사람들의 삶과 우리 행성은 행동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면으로 대면하도록 불리운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다.

나자렛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하시는 성모님께 귀를 기울이면, 일치가 약속하는 '새 포도주'의 기적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희망의 물, 돌봄, 생태, 정의, 연민, 연대성의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야 함을 느끼고, 활기차게 되며, 도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창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불을 붙이고 더 인간적이 될 수 있는가?

Sr. Miros Santillen –IBVM 페루 관구

이 소책자의 묵상 자료는'하나됨'이라는 아프리카의 철학 우분투(Ubuntu)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우분투. 환언하면, 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이 철학은 우리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라는 뜻이다. 우분투 철학에서는 그룹 연대성, 시너지, 상호 연결성, 공동 인간성, 상호간의 책임을 믿는다. 우리 모두는 창립자 메리 워드가 소중하게 여긴 사랑과 연민과 생명 서클의 한 부분이며, 공동 유산과 인간애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손가락 하나로는 낟알을 집을 수 없다고 하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하나됨은 복음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며, 하나됨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다(요한 17:23). 우리의 미션은 하나됨으로 더 높이 고양될 것이다. 우분투는 하나 되라고, 음악을 함께 연주하며 장벽을 허물라고, 몸체를 일궈내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세상에 불을 붙이라고 하느님이 우리를 다그치신다.

우분투는 우리 서로를 위한 인간애를,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서로를 진정으로 지지하는 신뢰를 거울 삼으라고 우리를 부른다. 우분투는 참여, 협력, 온정, 개방, 소외된 이들에 대한 보살핌과 사랑의 정신이다. 우분투는 성삼위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힘 없고 소리 없는 사람들의 정신이다.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의 하나됨을 뿌리째 흔들고 있기에, 재결합, 치유, 희망의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서클의 부분이며, 이 지구의 참된 부분임을 기억하자.

우리 미래의 가능성은 과연 무엇인가? 미래는 우리도 메리 워드의 동료들처럼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한 가족으로, 새로운 어떤 시작을 위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 힘으로 모험을 감수하라고 부르는 특별한 순간이다.

Sr Mercy Shumbamhini CJ & Sr. Jane Gikonyo IBVM